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이 시대의 율법주의 성경: 마태복음 5장 17-20절

Tag: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5:17-20)

오늘은 율법주의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

율법주의란 말은 율법+주의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잘 아는바와 같이 율법이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의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ism;단순한 생각이나 정보, 지식, 지혜가 아니라 주장과 정의개념이 담겨진 생각이나 이념이다.

정의개념에는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포함된다.

단순히 ‘하늘은 푸르고 강물은 흐른다’는 단순한 서술에는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이나 정의와 불의의 개념은 없다.

이와 달리 ism에는 항상 서술이 아닌 명제가 사용된다. 명제는 논리적으로 뜻이 분명한 문장을 말한다. 위에 사용된 서술을 명제로 바꾼다면 ‘날씨가 맑은 가을에는 대체적으로 하늘이 푸르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가 된다.

약간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 보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 라는 명제는 참이다. 헌법 아닌가?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니 이번에 세금은 내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 세금이 내리는가? 하는 수 없이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투표로 대표를 뽑아서 그에게(그의 판단에)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는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결국 임기 때문에 이념 전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어서 전체주의자들에 비해서 위험한 제도임.)

또 내 맘대로 사람을 재판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힘을 합해서 일을 도모한다면 될까? 안될 말이다. 새 헌법에는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재판도 하게 한다고 한다.

결국 위의 헌법 1조 2항의 명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통한 주권이고, 법률이 정한 권력만을 권력으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런데 이 명제를 공산주의 식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념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이처럼 주의는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참과 거짓이라는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냥 내가 좋다고, 내 맘에 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멋있어서 무조건 찬성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여기에 거짓말이 파고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명제 속에 교묘하게 기생충을 집어넣는 것이다. 듣기는 그럴 듯한데, 사실은 속이는 말이 들어있고, 겉만 번지르르한 말이 들어있다. 거기에다가 인상이 좋으면 천사의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 속은 마귀의 계략이 담겨있다.

이 시대의 율법주의란?

잘못된 정의 감각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고, 대개는 기득권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 시대의 잘못된 정당성을 찾아라.

(한가지 예)이 시대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

1. 그린피스.

이들은 환경보호라는 미명(거짓 정의)하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제는 버젓이 TV 광고를 통해서 모금운동까지 한다.

2. 핵연료 정책은 위험하고 나쁘다. (판도라)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현존하는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정책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었고(그들만이 해석의 주체;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함. **자기들 이념대로 해석함**),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스테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려고 오신 주님

특히 제사법(죄사함에 관한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예배), 정결법(세례와 의로운 삶에 관한 법)을 완성하려고 오심. 십자가로.

선지자;예언을 말하며 특히 메시아의 예언을 완성하려고 오심. 즉 자신이 메시아 이시므로 이제 더 이상 메시아 대망은 미완성이 아님.

-십계명이 핵심이며, 예수님이 십계명의 정신을 정확히 해석해 주심.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예수님께서서 완성하고 남겨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율법임. 그러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정신을 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함.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실수로 율법을 잘못 해석할 수 있음.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됨.

-반면 스스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겨우 천국에 들어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들보다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세례요한만 되어도 천국에는 들어감.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보다는 나올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을 수 있음.

-그러므로 항상 오늘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생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함.

-여전히 변형된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고, 허망한 것에 끌려 다닐 수 있다. 대형교회의 위상, 이단의 위상,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위 대해 보이고, 소속감이 곧 자존감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23:23)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23:28)

-척하는 것이 곧 율법주의이고, 진짜는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유지하는 것, 자신의 삶과 생각과 헌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자신의 책임에 충실한 것.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친밀한(그 증거)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삶이다.

아멘.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5:17)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7:12)

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마11:13)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22:40)

<찬양예배>

제목 :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경: 유다서 1장

Tag: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2 공훈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미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2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4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7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욕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기다리라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홀히 여기라

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홀히 여기라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1:1-25)